

# 의사-간호사 화해선언, '선언' 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글·이강윤 |  
문화일보 기자

## 의사 등 師 - 존경의 의미 함축

의사는 교사처럼 스승 사(師)자를 쓰는 몇 안 되는 직업중 하나다. 간호사도 스승 사자를 쓴다. 예전엔 간호부나 간호원으로 부른 적도 있었지만, 요즘 그런 말을 썼다가는 눈총받기 십상이다.

판사나 검사는 일 사(事)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인기전문직들은 선비 사(士)자를 쓰는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들에게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가 연상되는 스승 사자를 붙여 존경의 뜻을 표시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은 단순

직업인과는 달리 좀 더 숭고한 그 무엇이 있다는 의미나, 또는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난 4월 7일 "이제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다짐하는 상호존중선언식을 가졌다.

사람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실과 바늘의 관계인 것으로 알고들 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협회장이 호텔에서 양측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화해선언을 해야 할 만큼 이들은 앙숙지간인가. 다반사까지는 아니지만 양측 간엔 그간 불미스러운 일이 적지 않았다.

최근 사례 두 가지만 보자. 올 초 경남 모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응급환자 치료과정에서 산소호흡기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급상황에 처할 뻔한 일을 두고 간호사에게 '주의'를 주다가 서로간에 멱살을 잡고 밀고 밀치는 '폭력'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호사 목에는 찰과상흔이 남았고 "뺨까지 맞았다"고 주장했다. 의사는 '일방적 폭력 행사'를 부인하며 쌍방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급기야 그 병원 노조가 의사의 폭력을 규탄하며 항의시위에 들어가자, 해당 의사는 노조에 사과하러 찾아갔다. 그러나 간호사 출신 노조위원장은 이 의사의 뺨을 때리며 "뺨을 맞는 게 뭔지 아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로써 양측은 극한 대립으로 번졌고 마침내 병원내 분규로 확산되기까지 했다.

국내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선 간호사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그것도 수술방에서 일삼던 의사가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말 교수직을 정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의사들은 말한다. "간호사는 직무수행상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초긴장 응급상황에서 일하다 보니 곱지 못한 언행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는 상호존중 차원에서 노력하자."


간호사들 얘기는 좀 다르다. "의사들의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간호사 하대나 경시, 즉 간호사들의 독립성과 고유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들의 자세가 근본 문제다."

## 'हे게모니 쟁탈 불식' 이 화해 출발점

두 협회장의 화해선언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의사와 간호사 양측 모두 헤게모니 쟁탈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의사들은 전문성은 물론 수학 연한이나 병원 내 위치 등에 있어서 간호사들과 비교되기 힘들 만큼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특권 의식으로 발현되서는 곤란하다. 같이 일한다는 동료의식이 전제되어야만,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업무적 갈등이 인간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들도 고쳐야 할 대목이 있다. 마치, 고참 하사나 병장이 갖 전입은 소위를 길들이려는 것처럼, 신참 인턴들에 대한 일부 고참 간호사들의 '드잡이'도 없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른바 인턴 길들이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로 으르렁대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손해보는 것은 환자들 뿐이다. 스승 사 자 쓰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사람들은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스승 사 자를 붙여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4